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3년 12월


선교편지 제 61 호



복된 성탄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희망찬 새해에도 한없이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필리핀에서 박인호, 이연지 드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 34:3)

 벨기에의 재난 역학 연구소에서 유엔의 지원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재난 통계 보고서 (Annual Disaster Statistical Review / reliefweb.int)'에 의하면 필리핀은 세계적으로 재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발생 빈도 수는 173개 나라 중에서 매년 3위 이내에 속하여 있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안타깝게 매년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리적으로 '불의 고리 (Ring of Fire)'라고도 불리우는 세계에서 활동이 가장 왕성한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지진의 미동을 쉽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진을 대비한 비상 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10월에 이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보홀 (Bohol)' 이라는 곳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와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필리핀은 지리적으로 환태평양 지진대와 화산대가 겹치는 독특한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육지와 해저를 가리지 않고 지진뿐만 아니라 화산 폭발이 왕성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곳에서 차량으로 약 3시간 거리의 지역에도 유황이 항상 타 오르고 있는 활화산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북태평양 서쪽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즉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년 내내 30여개의 크고, 작은 태풍이 필리핀 전역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까닭에 홍수, 강 범람, 산 사태, 쓰나미등이 쉬지않고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재난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마치 살얼음을 걷고 있는 듯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슈퍼 태풍 '보파 (Bopha)'가 지근거리에 있는 곳을 휩쓸고 지나가서 거의 2,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금년 11월 초에 또 다른 5등급의 슈퍼 태풍 '하이옌 (Haiyan)'이 (필리핀에서는 '올란다 (Yolanda)'라고 명명) 마치 저희의 머리 끝을 스치듯이 근처 북쪽 지역을 강타하였습니다.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규모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는데, 그 처참한 상황은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현지 목사님 중에 슈퍼 태풍 '하이옌'이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따끌로반 (Tacloban)' 이라는 지역에 어머니가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태풍이 강타하기 수일 전부터 지역 주민에게 대피 경고를 한 까닭에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기 위해서 서둘러서 '따끌로반'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밀어 닥친다는 경고가 무색하게 날씨는 점점 더 화창해져서, 대피 하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태풍을 피해 지역을 떠나는 주민들은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태풍이 오면 학교가 휴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학생들은 즐겁게 뛰어 놀고, 상점들은 비상 물품 사재기로 인하여 때 아닌 호황을 맞아서, 마치 마을 전체가 축제를 기다리는 듯이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매우 유력한 현지 정치인 중의 한명은 태풍이 지나 가기 전 날에 아이들을 포함하여 30여명이나 되는 모든 친척들을 집에 초대하여 태풍 속에서 흥겨운 파티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많은 경고 속에 우려했던 강력한 슈퍼 태풍 '하이옌'이 '따끌로반'을 포함한 필리핀 중남부 지방을 강타하였습니다. 뉴스마다, 사람마다 사상자 수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가운데, 모두에게 큰 아픔과 교훈을 남긴 사상 초유의 재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태풍을 조롱하듯이 가족 파티로 즐거워했던 현지 정치인은 친족 30여명 중에 18명이 한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아픔을 겪었고, 본인도 심하게 부상을 입고 망연자실해 있다고 합니다.

무척이나 궁금했던 노아 시대가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 24:38,39)**



필리핀에 정착을 한지 벌써 6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준비와 기도 가운데 선교지의 삶을 시작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당황했던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어느 것보다도 '병원'과 관련된 경험은 아직도 적응이 잘 되지 않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정착 초기 현지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속을 밟는 중에, 미처 생각지 못한 생소한 절차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상대적으로 '마약'관련 범죄가 만연함으로 인하여 운전 면허 취득을 위해서 소변 검사를 통한 마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운전 면허 접수처 부근의 사설 소변 검사소(?)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마약 검사 결과 확인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가뜰이나 잡상인들로 인하여 복잡한 거



리에서 사무실과 화장실만 갖춘 허름한 소변 검사소들이 서류를 들고 배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떠들썩하게 호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위 '뼈끼'를 따라서 검사소라고 불리우기에는 너무 협소한 곳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소변 검사를 위해서 이미 몇번이나 사용했는지 알수없는 재생 용기를 주면서 소변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손으로 만지기도 꺼림직한 용기를 받으려고하니, 운전 면허증이 없이 살고 싶을 만큼 순간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지시하는대로 따랐지만, 공연히 재생 용기 때문에 마약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것같은 초조함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을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입국하기 전, 비자 신청에 필요한 신체 검사 결과를 모두 제출하였지만, 이곳에 도착해서도 지정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눈을 최대한 낮추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선교지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가장 시설이 좋은 종합 병원이 마치 전쟁터의 야전 병원처럼 보이는 당황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진료가 될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넘어서, 도리어 이 병원을 통해서 새로운 병이 전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정도 였습니다. 운전 면허 접수처 부근의 소변 검사소 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보였지만, 이곳에서도 소변 검사를 위하여 재생 용기를 사용하기는 마찬가지 였습니다. 제일 두려운 검사는 혈액 검사 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사용한 주사 바늘들이 과감히 버려지는 것을 목격했지만, 채혈할 때 핏줄을 잘 보이도록 팔뚝을 묶는 노란색 고무줄이 때로 찢든 얼룩진 고동색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 마치 고무줄을 통하여 전염이 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검사가 다 끝나고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외에는 검사에 대한 신뢰는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뎅기 (Dengue) 모기'에 물려서 현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생소한 병원인데, 낡은 병원 건물은 물론 어두운 입구부터 긴장을 하게 하기에 충분 하였습니다. 선교사는 1인실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일반 병실과 달리 화장실과 오래된 TV가 있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진동하는 알코올 냄새가 아니면 병원이라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병문안 내내 뎅기균보다도 더 무서운 병균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병문안을 마치고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스파마스트 대학에 장학생으로 재학하는 25 명의 학생들과는 매주 제자 훈련을 통한 관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업 문제와 가정에서 생기는 대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발 벗고 나서야만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11월에만 두 학생의 아버지들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찬양을 제일 잘 하는 '도나'의 아버지는 막일을 하는 중에 추락하여 척추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도나' 어머니로부터 갑작스런 사고 소식을 전화로 연락받고,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도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환경은 할 말을 잃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병실이 부족해서 중상 환자들이 복잡한 복도에 간이 침대를 놓고 누워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환자복이나 담요, 침대에 이르기까지 전부 제 각각으로, 환자들이 회복을 위하여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좁은 병실에 간병인들로 북적이고, 이들이 오랜동안 머물렀던 흔적의 빨래와 식기들도 같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병이 날만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중에 '도나'의 아버지가 병실 구석에 중상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눈물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 하는데, 놀랍게도 '도나'로부터 아버지께서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고하며 하나님의 선한 큰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곳에서 가장 가기 싫은 곳 중에 하나가 병원이지만, 아무래도 '도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기쁜 마음으로 병원을 또 다시 찾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 119:71)



토요 성경 학교에 참여하는 고등학생들 중에서 자원하는 자에 한하여 '2차 성경 암송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별 30개의 요절을 매주 2개씩 15주 동안 모두 암송해야 합니다. 첫째 주에는 2개, 둘째 주에는 4개로 시작해서 마지막 15째 주에는 30개를 모두 암송해야 하며, 매주 소그룹 점검을 통하여 완벽하게 외울때까지 반복하게 되는데, 말씀을 처음으로 암송해보는 학생들에게는 길고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주제별 요절만을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암송한 말씀을 삶에 적용 시키는 훈련을 같이하며, 함께 나누는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차 성경 암송 프로그램에는 초기에 많은 학생들이 의욕적으로 시작했었지만, 끝까지 순종한 28명의 학생들만이 성공적으로 30개의 요절을 모두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모두 암송한 학생들은 성경 암송에 대한 축복과 유익이 얼마나 큰지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아직도 진행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암송한 25명의 졸업반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으며 꿈같은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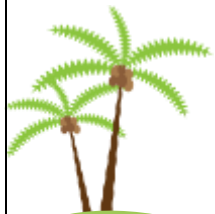


이제 2차 성경 암송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몇 명이나 끝까지 순종하여 성경을 암송할지 참으로 궁금하며, 또한 말씀이 어떠한 축복으로 저희들의 앞 길에 구체적으로 역사 하실지도 흥미진진합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암송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 땅의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백과 같은 신령한 축복이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삼하 23:2)

기도 요청

1. 디고스 지역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2. 2014년도 마띠 고등학교 장학 프로그램을 위하여
3. 스파마스트 대학 선교를 위하여
4.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변경을 위하여
5.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후원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